

한국전쟁 연구서, 무엇이 얼마나 나와있나

전통 수정 절충주의 등 세갈래...자료공개가 연구수준 심화

망각의 저편으로 내몰 수 없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인 한국전쟁. 전체 인구의 20%가 돌연 시체로 바뀐 참화였던 한국전쟁에 대한 체험적 기억이 줄어드는 반면, 학술차원의 연구는 차츰 제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우선 비밀문건에 속하던 1차자료들의 공개가 이뤄지고 획일적인 종전의 시각에서 탈피함으로써, 최근에는 內因論에 의한 기원 조명과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의 이같은 활성화는 70년대 이후 탈냉전의 흐름에 따라 고무였던 외국학계의 그늘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우리 학계가 민족 내적 요인을 무시했던 그들의 이론에 異論을 제기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비록 내인론에 전적으로 기댄 저술은 아니지만, 해방 이후의 한국사를 심도있게 다룬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이 대리전으로만 평가됐던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발화점이 되었던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몇가지 동인에 의해 한국전쟁 관련서들은 참전기 수준에서 학술연구서의 차원으로 그 자리를 옮기고 있다.

국내학계 내인론과 절충주의 성향 띠어

발발 43돌을 맞는 지금 서점가에 나와 있는 한국전쟁 관련서들은 다큐멘터리류의 전쟁비사와 참전기, 논쟁의 씨앗인 남침설과 북침설을 다룬 책, 그리고 관련 강대국들의 시각 편차를 보여주는 책들로 구분된다. 이상이 내용상의 분류라면, 외국이론의 수용을 벗어나 국내연구자들의 성과물이 늘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은 크게 전통주의, 수정주의, 절충주의로 나뉜다. 거칠게 표현한다면, 전통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에 자극받은 “김일성의 무모한 도발”이라는 주장이고, “미국의 제국주의가 원인”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한국전쟁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입장이다. 국내저자의 책으로 전통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한국전쟁」(박영사)을 꼽을 수 있는데, 저자 김학준씨(전 대통령 사회보좌역)는 “국방부, 육본 등에서 발간한 전사류나 종군기자·퇴역장성들의 참전기 이후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지닌 수정주의 학파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학계현황을 진단하고, “그러나 수정주의 시도

다큐멘터리식 전사류나

참전기 등에 국한됐던 한국전쟁

관련서가 외국학계에 의해 진행되는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수정주의

논쟁을 극복하려는 국내학자들의

내인론·절충주의 연구서로 교체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전에 끼친 역할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들이 속속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자체는 학문적 사치이자 오만”이라고 잘라 말한다.

한편 외국학계에 의해 제기되고 논의돼온 전통·수정주의를 동시 비판하는 국내학자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책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김철범 엮음, 을유문화사)도 있다. 미·소 냉전논리 등 국제적 요인과 내부요인을 분석해야 한국전쟁에 대한 객관적 관점이 선다는 입장을 취한 것. 이외는 달리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과 국내체제를 함께 묶어 상호유기적인 작용관계를 고찰한 책이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하영선 엮음, 나남)이며, 진보성향의 소장학자들이 엮은 공동연구서인 「한국전쟁의 이해」(한국정치연구회, 역사비평사)는 편협한 통치이데올로기와 주관적 해석이 저지른 오류, 그리고 안보차원의 규제가 막은 학문적 자유의 길을 닦고자 기획된 책. 이 세권의 연구서들은 지난 90년 출판돼 국내연구자들의 열의를 짐작케 한 바 있다.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규명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비판적 재해석을 시도한 책 「한국전쟁연구」(최장집 엮음, 태암)도 주목에 값하는 국내연구서다. 4부로 구성돼 있는데, 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과 함께 문학작품에 투영된 한국전쟁을 다룬 문학평론가 임현영씨의 「전후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의 변모」도 수록한 이 책에서 최장집교수는 탈역사화 및 해체의 접근이 다분했던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비판하고 “민중적 역사인식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남한의 선제공격에 의해 북한이 우발적으로 전쟁을 발발했다」는 요지의 남침유도설을 비판한 「남침유도설 해부」(안천, 교육과학



서점에 마련된 6.25 관련 도서전.

사)는 6·25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과 면접법을 통해 ‘개전 주체논쟁’과 ‘선제공격 논쟁’ ‘개전준비 논쟁’을 정리한 이색적 연구서로 “이승만에 의한 남침유도설은 김일성에 의한 남침유도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일본의 지한파로 불리는 오노노기 마사오의 「한국전쟁」(청계연구소)은 ‘미국의 개입과정’이란 부제가 내용을 대표하는 책이고, 피터 로우의 「한국전쟁의 기원」(김시완, 인간사랑)도 “한국전은 미국이란 유일한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에 의해 치러진 전쟁”임을 밝히고, 미국정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전쟁을 대리전이 아닌 “냉전이란 국제적 구조 속에서 극단적인 대결로 표출된 것”이란 결론을 짓고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역할과 입장, 처신을 집중조명한 책들이 번역서 중에서도 가장 많다.

미국의 조기개입, 종전반대 새로운 주장도

소련·중국에 비해 미국이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주요배역’이었던 점도 있지만, 미국의 자료가 대부분 공개된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방연구원에 재직중인 김계동씨가 영문판으로 출판한 「한국에서 외세의 개입」(Foreign Intervention of Korea)은 한국전쟁 당시의 참전국 외교문서를 대조해 연합국들의 상반되었던 입장을 전쟁의 전개양상과 연계해 분석한 것.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이 전쟁의 조기종결을 반대했다는 증거로 “영국과 인도가 제시한 평화안을 미국이 거부한 점과 38선 이북으로 북한군 후에야 유엔총회의 결의를 얻어낸 점, 그리고 중국과

의 전면전을 우려한 영국의 ‘완충지대 설정 제안’을 무시한 점” 등을 제시한다.

미국의 처신에 주목한 김계동씨의 책과 함께 민족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동국대 강정구교수의 논문이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끈다. 「역사비평」 여름호에 실린 「미국과 한국전쟁」이 그것으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논쟁, 그리고 진보적 소장학자들이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내인론에서 제외됐던 한국전쟁 전개과정의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전쟁의 1단계를 6월 25일 이전의 미·북한 무력충돌과 4·3 항쟁 등의 ‘작은 전쟁’으로 보고, 2단계는 북한이 서울을 점령해 통일정부 수립을 꾀했던 ‘제한전쟁’의 시기, 3단계는 미국의 참전으로 ‘전면전’이 된 시기, 4단계는 중국의 참전으로 인한 ‘확대전’, 5단계는 53년 정전시까지의 ‘교착·제한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논문을 쓴 이유에 대해 강정구교수는 “한국전쟁의 초기단계는 민족해방을 핵심적 과제로 설정한 민족해방전쟁이었으나, 미국의 조기개입으로 전면전·국제전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덧붙여 “외국의 자료가 계속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한국전쟁 자료는 노출되지 않은 채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국내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증언자들의 자연사로 인해 진상을 밝히기 어려워지기 전에 남한정권에 의해 자행된 거창 양민 학살사건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다.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아물지 않고 있는 상처가 치유될 때는, 자료공개 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최태원 기자